(재)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58 (2026. 4.), 434-451
ISSN 1226-5926 (print), ISSN 2586-2480 (online)
DOI: https://doi.org/10.28977/jbtr.2026.4.58.434
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

JBTR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서평>

『존 로스 선교사를 통해 보는 최초의 한국어 성서와 한국 개신교의 기원』

(최성일, 서울: 순교자의 소리, 2024)

김석주*

1. 문제 제기

존 로스(J. Ross) 선교사의 최초 한국어 성서와 한국 개신교의 기원에 관한 연구는 한국교회의 지대한 관심사 중의 하나로, 1930년대 이래 여러 학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런 논문들은 대개 국내외 사료의 부족과 사료 비판의 소홀로 많은 오류를 범하며, 학계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1] 그러다가 다시금 새로운 연구의 기폭제가 된 것은 1955년 1월 대한성서공회의 홍보지 「성서한국」의 창간이었다. 한국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복구에 한창이던 당시 정치, 사회,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 걸친 재건 작업에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한성서공회도 본연의 사업을 재개하면서 성서 보급의 편의와 홍보를 위해 잡지를 발행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계간(季刊) 「성서한국」이다.

「성서한국」은 창간호부터 목사이자 고고학자인 김양선(1907~1970)의 "한국의 성서 번역사"를 연재하였는데, 이 연재는 총 20회에 걸쳐 5년 넘게 이어졌다.[2] 김양선은 한국 기독교의 전래를 주체적인 수용의 역사로 읽은

* 미국 Baylor University에서 중국교회사와 중국근대사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사)동서지행포럼 동서문명교류연구소 소장. sukjookim@hotmail.com.

1) 김양선, "Ross Version과 한국 Protestantism", 「백산학보」 3 (1967), 403.

2) 1884년 이전 만주와 일본에서의 한글 성서 번역 과정과 1885년 이후 국내 번역사를 20회에 걸쳐 다룬 김양선의 이 연재물은 함께 묶여 단행본(김양선, 『한국의 성서 번역사』 [서울: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1988])으로 간행되었다.

최초의 역사가이다. 서양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응찬, 백홍준, 김진기, 이성하, 서상륜, 서경조 등 서북 지방 의주 청년들의 한국어 성서 번역에의 동참과 자발적인 기독교 수용이 한국교회의 첫출발이었다고 보았다.[3] 이 무렵 홍이섭도 1956년 8월 29일과 30일 조선일보에 각각 "쫀 로쓰의 한글 성경 上"과 "쫀 로쓰의 한글 성경 下"를 기고하면서 같은 주장을 펼치는 수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 둘의 시도 역시 국내외 사료의 부족과 사료 비판의 소홀로 큰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 이후 1960년대의 소용돌이를 지나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가톨릭 사학자인 이원순, 개신교 사학자인 이만열, 미국 선교사인 김정현(J. H. Grayson) 등 몇몇 지각 있는 연구자들의 간헐적인 발표만이 있었다. 이원순은 언해본『성경직해』(1892/1896)와 함께 로스역 한글 성서를 소개하며 그 후『공동번역 성서』(1977)까지의 한글 번역 성경사를 열거하였다.[4] 이만열은 본격적으로 서양 선교사의 한국 입국 이전의 성경 번역과 기독교와의 만남을 다루었다.[5] 1971년부터 1987년까지 미국 연합감리교 파송 선교사로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인류학과 비교종교학을 가르친 J. H. Grayson은 한국명 김정현으로 "존 로스에 대한 단 하나의 전기적 연구"[6]인『한국의 첫 선교사, 羅約翰(John Ross)』을 1982년 출판하였으며, 로스의 성경 번역 과정을 논문으로도 발표하였다.[7]

이러한 역량이 무르익어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1991년에 반연간(半年刊)「한국기독교와 역사」를 창간하면서 특집으로 "한국교회 처음 상황"을 연재하였는데 거기에 민경배, 이덕주 등이 참여하여 한국교회의 기원 문제와 초기 신앙공동체 형성 과정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옥성득이 로스의 논문 "한국 기독교의 여명(The Christian Dawn in Korea)"을 번역하여 소개하였다.[8] 이 무렵 이 책의 저자인 최성일은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John Ross and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The First Korean Bible and Its Relation to the Protestant Origins in Korea"란 학위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3) 김양선, "한국의 성서 번역사 6",「성서한국」2:2 (1956), 24-29.
4) 이에 대해서는 이원순, "성서국역사논고",「민족문화」3 (1977), 34-50을 보라.
5) 이에 대해서는 이만열, "선교사 입국 이전의 기독교와의 접촉",「신학정론」2-1 (1984), 151-156을 보라.
6) 최성일,『존 로스(John Ross) 선교사를 통해 보는 최초의 한국어 성서와 한국 개신교의 기원』(서울: 순교자의소리, 2024), 38.
7) 이에 대해서는 김정현, "羅約翰과 성경번역 과정",「신학과 세계」11 (1985), 362-382를 보라.
8)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는 2022년 4월에 (재)대한성서공회 성경번역연구소와 함께 "존 로스의 한글 성경 번역이 한국교회와 사회문화에 끼친 영향과 과제"란 주제로 '존 로스 한글 성경 번역 14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귀국하여 “존 로스와 한국 개신교 1”(1992), “존 로스와 한국 개신교 2”(1992), “베드로의 회심과 존 로스의 문화 이해”(1995) 등의 논문을 활발하게 발표하였다. 그러나 1995년 한신대학교의 선교신학 교수가 되면서 더이상 같은 주제의 연구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24년 자신의 박사학위논문(1992)을 그대로 직역한 이 책을 한국어로 출간하였다.

2000년 이후 많은 신진 학자에 의해 여러 편의 학술논문[9]과 학위논문[10]이 나오는 상황에서 왜 32년 전의 연구 업적인 이 책의 서평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존 로스 선교사의 최초 한국어 성서와 한국 개신교의 기원에 관한 연구 성과가 부분적으로 진전되기는 했기만 여태까지 이 정도의 넓고 깊은 연구가 없다는 반증이란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슴에 담고 심도 있게 이 책의 내용을 분석하려고 한다.

2. 존 로스의 최초 한국어 성서와 한국 개신교의 기원

이 책은 모두 여섯 장과 결론 및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1~2장은 19세기 후반으로 접어든 당시 조선의 상황과 존 로스의 생애 그리고 그의 한국

9) 주요 학술논문들을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Hwan-Jin Yi, “Reflections on the First Translation of Korean Bible: The Ross Version of 1887 (*Yesu-Seonggyo-Jeonseo*)”, 「성경원문연구」 18 (2006), 114-129; 소요한, “초기 이북지역 선교에서 존 로스(John Ross)의 한글 성서가 주는 의미: 성서번역과 수용계층의 관계를 중심으로”, 「선교신학」 42 (2016), 189-215; 박형진, “로스역본’(Ross Version) 논쟁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49-2 (2017), 85-114; 김경연, “존 로스 「말코복음」(1887)의 대역 중국어 성서: 부사의 비교”, 「성경원문연구」 44 (2019), 164-181; 박형신, “존 로스의 중국어 성경주석 및 한글 번역본에 대한 역사적 연구”, 「한국교회사학회지」 58 (2021), 133-168; 박형신, “존 로스 선교사의 출생일 및 출생지 표기에 대한 역사적 검토”, 「신학논단」 108 (2022), 65-94; 옥성득, “로스와 한국 개신교: 1882년 출간된 로스본 첫 한글 복음서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57 (2022), 9-52; 유경민, “로스 번역본과 후대 번역본의 어휘 문체적 영향 관계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57 (2022), 53-88; 이두희, “존 로스의 『예수셩교누가복음젼셔』(1882)가 한글 성경 번역에 끼친 영향과 과제: 누가복음 20-24장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57 (2022), 141-195; 허은철, “존 로스의 한국 역사와 문화 인식”, 「총신대논총」 43 (2023), 361-390.

10) 주요 학위논문들을 연도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히로 다카시(廣剛), “개화기 한국어 성서의 번역어 연구: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5); 서수량, “존 로스(John Ross)의 선교사역에 대한 역사적 고찰: 사도바울의 선교전략적 관점에서”, 박사학위논문 (한국성서대학교 대학원, 2011); 소요한, “조선후기 개신교 전래와 수용 연구: 1876-1884년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1); 김상준, “로스(J. Ross)역 한글성경의 역사적 의미”,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12); 조공주, “초기 개신교 수용 원인 고찰: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18); 양익산, “존 로스(John Ross)와 한국 개신교의 자생적 시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20).

인들과의 만남을 서술하고 있다. 3~4장은 그가 번역하고 출간한 최초의 한국어 성서인『예수셩교젼서』(1887)의 번역과 반포를 비롯하여 이 로스역 성경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5~6장은 이런 사역의 결과 만주와 한국에 형성된 기독교 공동체를 소개한 다음 그의 선교 방법과 한국교회를 서술하고 있다.

2.1. 서론 및 당시의 상황들

이 책은 조선 왕조의 약사와 근세로의 이행 과정에 있는 조선의 상황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 한글 창제, 실학 운동, 17세기 이후 19세기 후반까지의 사회와 정치적 상황을 살핀 다음 천주교의 전래 및 개신교와의 초기 접촉에 대해 서술한다.

천주교의 전래 중 1253년 교황 이노센트 4세(Innocentius IV)가 몽골에 파송한 프란시스코 수도회의 프랑스인 신부 루브룩(G. de Rubruc)의 서신을 언급하며 아마도 그가 몽골 왕실에서 고려의 사신을 만난 듯하며, 서신에서 고려를 서양에 소개한 첫 번째 사람일 것과 그의 서신에 나오는 "Caulej"가 나중에 프랑스어로 Corée, 영어로 Korea로 불리게 되었다는 추측은 흥미롭다.[11] 또한 임진왜란 당시인 1593년 조선에 몰래 들어와 1년 동안 머물렀던 스페인 신부 세스페데스(G. de Céspedes)를 조선에 입국한 첫 번째 사제로 서술하며, 일본에 포로로 잡혀간 후 예수회 수사가 되어 선교를 위해 수차례 조선에 잠입하려 했던 조선인 빈센트 권[12]도 소개한다.[13]

개신교와의 초기 접촉에 대해서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통상선인 로드암허스트호에 승선하여 1832년 7월 황해도의 장산곶 근처의 섬에 정박하였다가 금강 입구인 바실 해안까지 도착하여 한문 성서와 종교 서적을 배포하였다는 구츨라프(K. Gützlaff)를 먼저 소개한다. 1854년 8월 영국의 탐사선인 H. M. S. 바라쿠타의 탐험대 지휘관인 트론슨(J. M. Tronson) 역시 부산항에 도착하여 일본어 성서와 종교 서적을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서술하는 것은 윌리암슨(A. Williamson)의 제안으로 한국을 향하게 되는 토마스(R. Thomas)이다. 그는 1865년 한국의 서해안에 두 달 반 머물다 중국으로 돌아간 후 1866년 미국의 상선 제네럴셔먼호에 올라 대동강을

11) 최성일,『존 로스(John Ross) 선교사를 통해 보는 최초의 한국어 성서와 한국 개신교의 기원』, 25.

12) 라틴어 이름은 Vincentius Caun이며, 일본어로는 カウン・ヴィセンテ(Kaun Vicente)라 불리는데, 이에 가까운 조선인 성이 '권'이기 때문에 '빈센트 권'이라 통칭되고 있다.

13) Ibid., 25-26.

거슬러 평양을 향하다가 “한국 군인의 칼에 목 베임을 당했다.”[14]

2.2. 존 로스의 생애와 한국인들과의 첫 만남

존 로스의 초기 생애에 대한 자료는 매우 희박하고, 스코틀랜드나 한국에서 거의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그에 대한 전기도 앞서 언급한 김정현의 것 정도이다. 그런데 이 전기 역시 그 구성이 독특하여 “처음 부분은 저자의 로스 전기(傳記) 비슷한 연구이며, 둘째 부분은 한국 최초의 성서 번역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던 김양선(金良善) 목사의 연구 논문의 전재(轉載),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로스 자신의 논문과 책의 전재 혹은 영인(影印)으로 돼 있다.”[15]

로스는 스코틀랜드 서북 지역에 있는 작은 항구인 라리키(Rarichie)[16]에서 1842년 4월 2일[17] 양복 재봉사인 아버지 휴 로스(H. Ross)와 어머니 캐더린 서더런스(C. Sutherland)의 8남매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에든버러의 연합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한 후 1872년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선교사로 중국 만주에 파송되었다. 그는 그 후 1910년 지병으로 은퇴하기까지 39년 동안 만주의 개신교 선교 창립자의 한 사람으로, 최초의 한국어 신약성서 번역자로, 그리고 중국과 만주 선교에 대한 저자로서 헌신하다 1915년 에든버러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그가 파송될 당시 해외선교위원회는 그의 해외선교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언어적 능력을 높이 사서 그를 파송하였다고 한다.[18]

만주에서 선교하던 그가 어떻게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한국을 알아갔는지는 잘 알 수가 없다. 어떻든 1876년 그의 두 번째 고려문 방문에서 그는 이응찬을 만나 그를 한국어 어학 선생으로 고용하였다. 이와 동시에 백홍준, 김진기, 이성하와 서상륜, 서경조 등을 차례로 만나 그들에게 선교하였고, 이응찬, 서상륜 등을 한국인 번역자로 활용하였다.

---

14) Ibid., 35.

15) 민경배, “한국교회사 자료 발굴의 한 성과: 김정현 著『한국의 첫 선교사 John Ross』 서평”, 「기독교사상」 288 (1982), 199.

16) 박형신은 스코틀랜드 센서스에 근거하여 그의 출생지를 이스터 라리키로 제시하는데, 이스터 라리키라는 지명은 닉 교구 북동부에 위치한 웨스터 라리키, 라리키 언덕, 웨스터 토란, 브룸타운의 가운데에 위치한 장소로 파악되지만, 그가 실제로 태어난 건물, 즉 ‘생가’로서의 출생지는 현재까지는 알려진 바 없다고 한다(박형신, “존 로스 선교사의 출생일 및 출생지 표기에 대한 역사적 검토”, 80-89).

17) 박형신은 또한 로스에 대한 초기 문헌들이 그의 출생일을 1841년 8월 9일로 잘못 표기하는데,『스코틀랜드연합자유교회 인명사전 (1900-1929)』과 최성일이 1842년 7월 6일을 주장하여 그의 출생일의 정립에 공헌하였다고 말하면서 ‘1842년 닉 지방 옛 교구 호적부’에서 발견되는 로스의 출생증명서에 근거하여 이를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Ibid., 71-79).

18) 최성일,『존 로스(John Ross) 선교사를 통해 보는 최초의 한국어 성서와 한국 개신교의 기원』, 47.

그렇다면 한국인 최초의 개종자는 누구였을까? 한국의 많은 학자들은 이응찬이 고려문에서 로스를 만났던 첫 번째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가 한국인 최초의 개신교 개종자로 여겨 왔다. 여기에는 김양선이 그의 1967년 논문에서 로스의 글 "한국 기독교의 여명(The Christian Dawn in Korea)"만을 참고하여 그렇다고 주장한 것도 큰 몫을 차지하였다.[19] 그런데 매킨타이어(J. Macintyre)가 쓴 보고서에 한국인 세례에 관한 첫 기록이 있으며, 중국인 신자들이 만족하였던 "행복한 신자"가 최초의 세례 받은 한국인 기독교인이었음을 함축한다. 그의 세례는 1879년에 있었을 것이다. 그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매킨타이어와 함께 일을 했는지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가 이응찬이 아니었던 것은 틀림없다. 두 번째 개종자는 백홍준이며, 세 번째 개종자는 이미 2년 동안 로스를 위해 어학 선생과 번역자로 일했던 바로 이응찬이다. 이응찬이 1879년 매킨타이어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은 아주 분명하다.[20]

2.3. 성서의 번역과 반포

로스는 성서 번역을 위해서 먼저 한국어를 배워야만 했다. 그의 진정한 한국어 공부는 1876년 고려문에서 이응찬을 어학 선생으로 고용한 이후에 시작된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1877년 상해에서 출판된 <한국어 첫걸음(*Corean Primer*)>도 이응찬과의 공동 작품일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로스가 한국어로 신약성서를 번역하기 시작한 때는 역시 확실하지 않다. 많은 한국의 학자들은 이응찬이 1874년 가을에 로스를 만났다는 잘못된 근거 아래 번역 작업이 1875년에 시작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로스가 1876년 봄에 이응찬을 만났다면 번역 작업이 1876년보다 더 빠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현은 로스가 1877년에 <한국어 첫걸음>을 출판한 이후 비로소 번역 작업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21] 로스가 성서 번역을 통해 한국어를 배웠을 것을 가정하면, 번역의 시기는 초기 번역 시기(1876~1879. 3), 두 번째 번역과 개정 시기(1879. 4~1882. 3), 그리고 최종 번역과 개정 시기(1881. 4~1886)로 구분될 수 있다.

1876년부터 1886년까지 10년 동안의 번역 작업은 로스와 메킨타이어가

19) 김양선, "Ross Version과 한국 Protestantism", 424.
20) 최성일,『존 로스(John Ross) 선교사를 통해 보는 최초의 한국어 성서와 한국 개신교의 기원』, 71-74.
21) 김정현(J. H. Grayson),『한국의 첫 선교사, 羅約翰(John Ross)』(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82), 35.

주도하였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한국어 성경 번역의 원리들을 고수하였다.

(1) 보통 사람의 언어로 번역한다.
(2) 순수한 한국어 단어들의 사용: “하늘”과 “천(天)”, “사람”과 “인(人)”처럼 중국어와 한국어로 모두 표현될 수 있는 말은 한국어 단어를 사용했다.
(3) 의미가 먼저이다.
(4) 통상적인 한국어 사용례와 충돌하는 표현을 피한다. 한국어에서 상급자나 연장자에 대한 2인칭 대명사 “당신(thou)”이나 “너(you)”의 직접적인 사용은 극도로 실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는 “아버지(Father)”, 예수를 지칭할 때에는 “주님(Lord)”이나 “선생(Teacher)”을 사용했다.
(5) 메시지의 내용을 유지하기 위해 문장의 형태를 변경한다.
(6) 그리스어 명사들에 가장 근접한 근삿값을 사용한다. 누가복음의 첫 역본(1882)에서 로스는 그리스어 고유명사들을 “예루사렘”, “압라함” 등 중국어 음역을 따라 번역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한국어의 유연성이 그리스어 고유명사들에 아주 가까운 근삿값을 허용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한국어에서 가능한 한 가깝게 예루살렘, 아브라함 등으로 표현하도록 결정하였다.
(7) 그리스어 용어들을 유지한다. “Baptism”과 “Sabbath”는 중국어 성서에서 “세례(Wash Rite)”와 “안식일(Rest Day)”로 번역되었다. 로스는 이런 중국어 용어들이 그 신학적 의미를 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어 용어들은 “밥팀네(Baptism Rite)”와 “사밧일(Sabbath Day)”과 같은 그리스어 음역으로 남겼다.
(8) 특정한 중국어의 기술적 용어들을 유지한다. 시간, 돈, 무게 같은 많은 기술적 용어들은 중국어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런 용어들은 한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었다.
(9) 신학적 용어들: 성서의 모든 번역에서 결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Deity)의 이름과 영적 주체들의 이름들이다. 로스는 “God”을 중국어 용어인 “상제”나 “천주” 대신에 “하나님”으로, “Spirit”을 중국어 용어인 “성신(聖神)” 대신에 “성령”으로 번역했다, 그러나 “angel”에 대해서는 중국어 용어 “천사”를 그대로 채택했다.[22]

번역의 첫 단계는 초고 만들기이다. 초고 저본이 한문 성서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많은 한문 성서 중에서도 <대표본>(신약 1852, 구약 1854)과 당시 사용하던 북경 지역어 역본이 저본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대한

22) 최성일, 『존 로스(John Ross) 선교사를 통해 보는 최초의 한국어 성서와 한국 개신교의 기원』, 94-98.

성서공회는 <대표본>으로 알려진 <신약전서 문리역>이 저본이라고 기술하지만, 이것 외에 적어도 <북경관화역본>(1878)이 사용되었을 것이고 주장한다.[23]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어 성서와 영어 성서를 사용한 개정이다. 로스는 그리스어 성서의 개정역 Westcott and Hort NT (WHO, 1881)와 영어 성서의 개정역 English Revised Version (ERV, 1881)에 기초한 성경 번역이라 하였지만,『대표자역본』이 영어 King James Version (KJV, 1611)과 그리스어 비잔틴 본문 Stephanus (TR, 1550)가 기초였기 때문에, 이것들 역시 저본으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단계는 최종 원고를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 그리스어 성구사전을 사용한다고 했지만, 그가 어떤 종류의 성구사전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알 수는 없다.

2.4. 로스 번역본 분석

저자는 번역의 저본과 로스 번역본의 이해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하여 누가복음서를 중심으로 로스 번역본을 분석하고 있다. 그 이유는 1882년 누가복음이 첫 판본 이후 가장 자주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의 첫 번째 개정은 1883년에, 두 번째는 1887년에, 그리고 마지막은 1890년에 개정되었다. 또 다른 이유는 1882년 누가복음의 첫 출판 당시에 로스가 그리스어 및 영어 개정역과 비교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1882년 누가복음이 KJV와 비잔틴 본문에 기초한 것이 틀림없음을 함축한다.[24]

비록 이 분석이 누가복음서로만 수행되었지만, 번역의 기본 저본이 한문 성경 <대표본>이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25] 최초의 번역 원고가 한국인 공동 번역자들에 의해 한문 성서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스는 개정 과정에서 이 원고를 그리스어와 영어 본문들과 비교했다. 그리스어 본문 문제에 대하여, 로스는『예수셩교누가복음젼셔』(1882)에서 비잔틴 본문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후대의 역본들에서는 옥스퍼드판 그리스어 개정역이 사용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그는『예수셩교누가복음젼

23) 최성일, "『로스역』 신약 성서의 특징과 저본에 관한 소고: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중심으로",「Canon & Culture」4:2 (2010), 113.

24) 최성일,『존 로스(John Ross) 선교사를 통해 보는 최초의 한국어 성서와 한국 개신교의 기원』, 136-137.

25) 최성일의 이런 주장과 달리 이두희는 히로 다까시와 김경연의 주장에 힘입어 누가복음 21-24장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대표본> 이외에 <브리지만-컬버슨역본>(1859, 신약)도 기본 저본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였고, 또한 누가복음 22:25의 경우에는 <북경관화역본>(1878)까지 참고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두희, "존 로스의『예수셩교누가복음젼셔』(1882)가 한글 성경 번역에 끼친 영향과 과제: 누가복음 20-24장을 중심으로", 164-177.

셔』에서 KJV에 몹시 의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후대의 역본에서는 ERV를 사용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로스는 자신의 번역본이 개정역에서 번역된 최초의 신약성서라고 주장했을 것이다.[26] 로스 번역본의 또 다른 특징은 로스가 그리스어 본문보다는 영어 본문의 독법을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로스 번역본에서 사용된 방언, 한자 표현들 그리고 애매모호한 표현들 때문에, 로스 번역본은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번역이라고 비판을 받았고, 이것들이 로스 번역본을 거부하는 이유가 되었다. 물론 약간의 평안도 방언들과 어려운 한자 표현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로스 번역본이 절대다수의 한국 백성들에게 이해되지 못할 어떠한 독특성을 가졌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한국 전체에서의 광범위한 사용을 위해 로스 번역본의 일부 단어나 문체를 서울 표준말의 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 표기에 최초로 띄어쓰기를 도입하고 절대다수의 평민을 위해 순수한 한국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한 점은 이해 가능성의 관점에서 볼 때 로스 번역본의 가장 강한 강점이라 주장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하는 것처럼 로스는 한글 성서 번역에 있어서 한국인의 이해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다.[27]

2.5. 로스 사역의 결과들

최초의 한국어 성서 번역의 과정과 그 결과로 한국인 기독교 공동체가 만주에서 시작하여 한국 내로 뻗어 나가기 시작했다. 한국 내 대표적인 공동체는 강계와 의주와 소래교회이며, 서울의 정동교회 즉 새문안교회까지 연결된다고 말할 수 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은 첫째로 성서 중심의 교회로 나타났다. 한국교회 전체의 역사에 이 특징을 적용한다면, 성서 번역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말씀의 전래가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이 더욱 분명해진다.[28] 둘째로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나타났다. 한국 내에 충분한 선교사들이 없었을 때 대부분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서를 통해 개종했으며, 그리고 평신도인 그들에 의해 그들 자신의 교회를 세웠다.[29] 셋째로 자급하는 교회

26) 최성일, 『존 로스(John Ross) 선교사를 통해 보는 최초의 한국어 성서와 한국 개신교의 기원』, 136.

27) 소요한, "초기 이북지역 선교에서 존 로스(John Ross)의 한글 성서가 주는 의미: 성서번역과 수용계층의 관계를 중심으로", 203.

28) 최성일, 『존 로스(John Ross) 선교사를 통해 보는 최초의 한국어 성서와 한국 개신교의 기원』, 213-214.

29) Ibid., 217.

로 나타났다. 좁은 의미에서 그들은 선교회로부터 오는 작은 재정적 지원에 크게 기대지 않고 교회의 확장, 교회 건물과 유지를 위한 공급에 있어서 거의 완전하게 자급하고 있었다. 넓은 의미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를 그들 스스로 치리하고 있었다.[30]

이 특징들은 만주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의 형성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 속에서도 한결같았다. 만주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들을 비롯해 강계와 의주의 기독교 공동체들은 그 형성 과정에서 선교사들에 의한 직접적인 개입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오직 로스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소래와 새문안의 경우에는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미국 선교사들이 관여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관여는 기초적인 기독교 공동체가 한국인들에 의해 형성된 이후의 일로, 단지 교회의 구조적 형성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형성 과정에서 선교사들에 의한 직접적인 간섭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스스로 이 공동체들을 형성했음을 의미한다. 이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운동은 성서 중심, 평신도 중심, 자급하는 교회라는 공동체들의 특징들을 자연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만들어 냈던 것이 분명하다.

2.6. 로스의 선교 방법과 한국교회

저자는 한국 개신교회의 진정한 기원을 발견하기 위해 네비우스 선교 방법과 존 로스의 선교 방법을 비교 조사하고 있다. 1900년 이전 한국교회의 형성기 동안에 선교사들은 복음회를 위한 능동적인 사역에 종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교회가 아주 급속도로 성장해 나가자 선교사들은 교회의 증가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의 자생적인 형성은 초기 한국교회 역사에서 네비우스 방법의 위치에 관한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다. 네비우스가 한국의 미국 선교사들과 그들의 선교 정책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한국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당시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이 자생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형성되었다면 한국교회의 특징들이 네비우스 방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31]

앞에서 살펴본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은 로스에게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사람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사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의 형성에서

30) Ibid., 218.
31) Ibid., 255.

네비우스 방법보다는 로스의 선교 방법이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할 수 있다. 네비우스와 로스의 선교 방법들 모두 "삼자" 원리를 옹호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네비우스의 방법이 재정적 자급에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로스는 오히려 한국인들 편에서 전적인 지원 운동으로 이끄는 영적인 자급을 강조한다. 로스는 종종 자급, 자전, 자치를 포함하는 "자립(self-reliance)"을 사용한다.[32] 그의 선교 방법의 주된 목적은 자립하고 토착적인 교회를 개척하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초기 한국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들은 로스의 선교 방법에 의해, 그의 개종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운동이 이런 로스의 특정한 선교 방법에서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의 이 같은 종류의 선교 방법은 강요된 것이 아니며 강요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2.7. 결론 및 부록

이 책은 서론에서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하며 시작하였다: 한국의 기독교 선교 역사는 언제 시작되었으며, 한국 개신교회의 기원은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하여 이 책은 존 로스에 의해 번역되었던 최초의 한국어 신약성서와 관련하여 한국 개신교회의 초기 발전 단계를 조사하였고,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 속에서 성서의 위치뿐만 아니라 한국 개신교회의 기원을 발견하려고 하였다. 지역 혹은 지역 교회에서 선교사의 사역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이 번역되었다는 의미에서 한국 선교의 역사는 남다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성서 번역이 이미 입국한 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므로, 성서 번역은 종종 교육선교와 의료선교 같은 선교의 수단 중 하나로 간주된다. 그것은 착각이다. 비록 선교사들이 성서를 가져와 배포하지만, 성서는 선교의 수단이 아니다. 선교사는 단지 하나님 말씀의 도구일 뿐이다. 회심은 선교사의 현존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 선교사는 단지 다른 사람들을 회심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기독교 선교 역사에 대한 이런 새롭고 근본적인 전망 아래 한국 개신교회의 기원은 로스의 번역본이라고 결론 내렸다.[33]

32) Ibid., 276.
33) Ibid., 288.

3. 맺는 말

문제 제기에서 시작한 서평자의 질문을 되뇌며 서평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우선 먼저 아쉬운 것은 이 책이 32년 만에 한글로 번역되어 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일찍 번역되었더라면 2000년부터 활발히 활동하던 많은 신진 학자에게 자료와 주제에 폭넓은 영향력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저자 역시 이렇게 독보적으로 폭넓고 깊게 연구한 성과를 1995년 이후 논문 한 편의 발표[34] 이외에는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아쉽다. 그렇지만 늦게나마 번역하고 출간하였음에 감사를 드린다. 한문 성경의 저본 문제를 제외하면 저자의 연구를 뛰어넘는 후속 연구가 아직도 그리 많지 않다.

이 책에는 또한 로스 선교사의 초기 생애에 대한 연구가 잘 정리되어 있다. 사료의 부족으로 개연적인 것이 많지만, 그것 나름으로 후학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 생각한다. 부록으로 첨부한 자료 중 다음에 열거하는 "자료 1" 묶음은 이제까지 한국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귀한 사료들이다.

(1) 영국성서공회 서한집 (수신: 성서공회 총무)
(2) 영국성서공회 서한집 (발신)
(3) 스코틀랜드성서공회 서부위원회 회의록
(4)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 서한집
(5) 연합장로회 Missionary Record에 수록된 국내선교위원회의 갤릭 선교.

물론 시기적인 것을 떠나서 한두 가지 저자나 후학들이 보완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 첫째는 저본 연구에 있어서 누가복음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최소한 부분적이나마 다른 복음서나 서신을 한 가지 더 비교했으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한다. 둘째는 한문 성경에 있어서는 어느 부분도 비교 연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마 당시는 <대표본> 이외에 <브리지만-컬버슨역본>(1859, 신약)이나 <북경관화역본>을 쉽게 참고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연구자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여기 소위 <대표본>은 모리슨(R. Morrison)과 밀른(W. Milne)의 공동번역인 <신천성서>(1823)의 제2차 개정으로 1843년 중국의 다섯 개항장을 대표하는 15인이 선출되어 홍콩에서 역경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작업되었다. 즉 이들은 각각 영국런던선교회, 미국해외선교부/미국공리회(ABCFM),

34) 이에 대해서는 최성일, "『로스역』 신약 성서의 특징과 저본에 관한 소고: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Canon & Culture」 4:2(2010), 99-132를 보라.

미국침례회, 모리슨교육회에 속했지만 선교회의 대표가 아니라 개항장의 대표였던 것이다. 결국 신명(神名) 논쟁으로 분열되어 하나님 이름으로 “상제(上帝)”를 사용하는 영국 중심의 선교사들이 1852년 소위 <대표본>을 간행하였다. 그런데 이 역본의 공식 명칭은 <위판역본(委辦譯本)>이다. 물론 영어로는 “Delegates Bible” 혹은 “Delegates Version”이라 부른다. 그런데 공식 명칭을 두고 이 영어 명칭을 직역한 <대표본>이란 용어를 아직도 쓰는 것이 옳을까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위판역본> 혹은 영어가 아니라 중국어 공식 명칭을 번역한 <위원회역본>이라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주제어>(Keywords)
존 로스,『예수셩교젼셔』, 한글 성경, 중국어 성경, <대표본>.
John Ross, Korean New Testament Bible Ross Version, First Korean Bible, Chinese Bible, Delegates Version.

(투고 일자: 2026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26년 2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26년 4월 13일)

<참고문헌>(References)

김경연, “존 로스「말코복음」(1887)의 대역 중국어 성서: 부사의 비교”,「성경원문연구」44 (2019), 164-181.

김상준, “로스(J. Ross)역 한글성경의 역사적 의미”,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대학원, 2012.

김양선,『한국의 성서 번역사』, 서울: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1988.

김양선, “한국의 성서 번역사 6”,「성서한국」2:2 (1956), 23-29.

김양선, “Ross Version과 한국 Protestantism”,「백산학보」3 (1967), 401-461.

김정현(Grayson, J. H.), “羅約翰과 성경번역 과정”,「신학과 세계」11 (1985), 362-382.

김정현(Grayson, J. H.),『한국의 첫 선교사, 羅約翰(John Ross)』,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2.

민경배, “한국교회사 자료 발굴의 한 성과: 김정현 著『한국의 첫 선교사 John Ross』서평”,「기독교사상」288 (1982), 199-201.

민경배, “한국 기독회의 기원 문제”,「한국기독교와 역사」1 (1991), 21-32.

박형신, “존 로스 선교사의 출생일 및 출생지 표기에 대한 역사적 검토”,「신학논단」108 (2022), 65-94.

박형신, “존 로스의 중국어 성경주석 및 한글 번역본에 대한 역사적 연구”,「한국교회사학회지」58 (2021), 133-168.

박형신, “청말(淸末) 시기 만주(滿洲)지역 연구:유럽 개신교 선교부의 도래와 관련하여”,「한국기독교와 역사」43 (2015), 131-167.

박형진, “‘로스역본’(Ross Version) 논쟁에 관한 연구”,「장신논단」49:2 (2017), 85-114.

박형진, “존 로스와 연합장로교회 해외선교부의 한국선교에 대한 갈등”,「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112 (2016), 4-17.

배안호, “삼자원리와 존 로스의 선교방법: 한국장로교회의 초기형성사(1874~1893)에 관한 연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55 (2002), 3-10.

서수량, “존 로스(John Ross)의 선교사역에 대한 역사적 고찰: 사도바울의 선교전략적 관점”, 박사학위논문, 한국성서대학교 대학원, 2011.

소요한, “조선후기 개신교 전래와 수용연구:1876~1884년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1.

소요한, “초기 이북지역 선교에서 존 로스(John Ross)의 한글 성서가 주는 의미-성서번역과 수용계층의 관계를 중심으로”,「선교신학」42 (2016), 189-215.

안성호, “17세기 초 마테오 리치의『천주실의』와 19세기 제임스 레그의 중국유교경전 영어번역본에서 사용된 용어 ‘상제(上帝)’간의 신학적 연속성”,「한국기독교와 역사」32 (2010), 297-340.

안성호, “19세기 중반 중국어 대표자역본 번역 ‘용어논쟁’이 초기 한글성서번역에 미친 영향 (1843~1911)”, 「한국기독교와 역사」 30 (2009), 213-250.
안성호, “존 로스의 중국유교 원시유일신론과 중국어 성서번역의 용어논쟁에 관한 신학적 입장”, 「한국기독교와 역사」 40 (2014), 219-238.
양익산, “존 로스(John Ross)와 한국 개신교의 자생적 시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20.
옥성득, “로스와 한국 개신교: 1882년 출간된 로스본 첫 한글 복음서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57 (2022), 9-52.
유경민, “로스 번역본과 후대 번역본의 어휘 문체적 영향 관계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57 (2022), 53-88.
육진경, “19세기 후기 국어의 형태론적 연구-예수셩교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1990.
이덕주, “한국 기독교 초기 신앙공동체 형성 과정”, 「한국기독교와 역사」 1 (1991), 33-48.
이두희, “존 로스의 『예수셩교누가복음젼셔』(1882)가 한글 성경 번역에 끼친 영향과 과제: 누가복음 20~24장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57 (2022), 141-195.
이만열, “선교사 입국 이전의 기독교와의 접촉”, 「신학정론」 2:1 (1984), 151-156.
이만열, “한국의 기독교 수용과 그 특징”, 「아세아연구」 44:2 (2001), 3-22.
이상무, “초기 한글성경 번역과 보급에 대한고찰-최초의 한글성경 로스역본을 중심으로”, 졸업논문,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1999.
이원순, “성서국역사논고”, 「민족문화」 3 (1977), 32-50.
이진호, “한국 선교와 성경 번역”, 「기독교사상」 410 (1993), 34-40.
이효림(Li, Xiaolin), “중(中)·한(韓) 성서 번역의 역사와 십계명(출 20:1-17) 번역의 비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2018.
조공주, “초기 개신교 수용 원인 고찰: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18.
최성일, “『로스역』 신약 성서의 특징과 저본에 관한 소고: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Canon & Culture」 4:2 (2010), 99-132.
최성일, “베드로의 회심과 존 로스의 문화 이해”, 「신학연구」 36 (1995), 161-184.
최성일, “존 로스와 한국 개신교 1”, 「기독교사상」 397 (1992), 116-134.
최성일, “존 로스와 한국 개신교 2”, 「기독교사상」 398 (1992), 87-101.
최성일, “존 로스 (John Ross, 1842-1915)와 한국 개신교: 최초의 한글성서와 한국 개신교의 기원과의 관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8 (1992), 3-4.
최성일, 『존 로스의 중국선교방법론』,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3.
허은철, “존 로스의 한국 역사와 문화 인식”, 「총신대논총」 43 (2023), 361-390.

홍이섭, “쫀 로쓰의 한글 성경 上”, 「조선일보」, 1956.8.29.

홍이섭, “쫀 로쓰의 한글 성경 下”, 「조선일보」, 1956.8.30.

히로 다카시(廣剛), “개화기 한국어 성서의 번역어 연구: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5.

Choi, S. I., “John Ross and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The First Korean Bible and Its Relation to the Protestant Origins in Kore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Edinburgh, 1992.

Ross, J.,『존 로스의 한국사: 서양 언어로 기록된 최초의 한국 역사』, 홍경숙 역, 파주: 살림출판사, 2010.

Ross, J., “한국 기독교의 여명 The Christian Dawn in Korea”, 옥성득 역, 「한국기독교와 역사」 1 (1991), 163-174.

Yi, H.-J., “Reflections on the First Translation of Korean Bible: The Ross Version of 1887 (*Yesu-Seonggyo-Jeonseo*)”, 「성경원문연구」 18 (2006), 114-129.

<Abstract>

Book Review - *John Ross and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The First Korean Bible and Its Relation to the Protestant Origins in Korea* (Sung Il Choi, Seoul: The Voice of the Martyrs, 2024)

Sukjoo Kim
(Institute for the History of Orient-Occident Interchange)

This paper is on Sung Il Choi's book, *John Ross and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The First Korean Bible and Its Relation to the Protestant Origins in Korea*, published in Korea in 2024. This was a Korean translation of his English dissertation presented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at the University of Edinburgh in 1992. Therefore, I started with the review question at the beginning, "Why is it necessary to review this work, despite it being a 32-year-old contribution to the field?"

Then I proceeded to the main point of this book. It consisted of six chapters and a conclusion. Chapter One provides a general overview of the historical, socio-cultural, and religious conditions in which the Word of God was introduced in Korea. Chapter Two deals with a biographical sketch of John Ross and his initial contact with Koreans, which led him to do the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in Korean. In Chapter Three, the procedure of Bible translation, period of translation principles and methods of translation, and its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are discussed. In addition to these, the major criticism and eventual use and impact of the Ross Version are also discussed in this chapter. Through analysis of the Ross Version in Chapter Four, the basis of translation is verified and the intelligibility of the Ross Version is especially examined according to the major critical frameworks. In Chapter Five, the result of the Bible translation is determined by examining the formation of early Korean Christian communities. This examination helped to define the centr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Bible centered, lay oriented, and self-sustained. In Chapter Six, in order to find out where these characteristics came from, the Nevius mission method is cross-examined with the Ross's mission methods in relation to the so-called "three-self" principles. Through this case study of the Korean mission history, the place of the Bible is reaffirmed as

being the origin of the Christian Church.

In conclusion, I return to the question at the beginning, “Why review this 32-year-old work now?” My first regret lies in the fact that it took more than three decades for a Korean translation of Sung Il Choi’s book to finally emerge. Had this translation been available sooner, it would have undoubtedly provided a broader foundation of data and themes for the generation of rising scholars who have been active since the early 2000s. Nevertheless, despite these lingering regrets, I wish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for the eventual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this monumental work.